안료시장 "찬바람"

유기안료 6.0% · 무기안료 11.8% 감소

국내 안료시장이 정체국면을 벗어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몇년전 무기안료 시장에서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기안료시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국내 안료 생산량은 4만1861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안료 생산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유기안료	아조	4,039	3,248	▽19.5
	레이크	952	1,062	11.5
	프탈로블루	3,432	2,814	▽17.9
	프탈로그린	113	171	51.8
	기타	1,197	1,849	54.5
	계	9,734	9,146	▽6.0
무기안료	크롬	3,447	4,102	19.0
	징크	28,157	23,566	▽16.3
	감청	31	39	22.9
	기타	5,450	5,006	▽8.2
	계	37,086	32,714	▽11.8
합 계		46,821	41,861	▽10.7

이중 유기안료가 9146톤으로 전체의2.1%를 차지하고, 무기안료가 3만2714톤으로 8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료시장의 성장률은 93년대비 10.7% 하락했으며 유기안료가 6.0%, 무기안료가 11.8% 감소했다.
이러한 안료시장의 위축은 각각의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축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기안료시장의 경우 전체의 35.5%를 점유하고 있는 아조계안료의 생산량이 93년대비 19.6% 감소했으며, 그동안 국내 유기안료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프탈로시아닌블루는 17.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아조계의 경우 중국의 저가 제품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 · 고가 제품은 외국기업들이 끊임없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탈로시아닌블루의 경우 수출부진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기안료는 90년초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는 무기안료산업이 환경처리비용이 높아 채산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기안료 생산량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징크안료 시장의 축소는 후방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크안료는 중방식도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철제컨테이너용 도료에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3년 이후 국내 철제컨테이너산업은 급속한 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94년의 생산량은 93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4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안료는 프탈로시아닌그린 안료로 93년대비 5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4/17>